



오순환 '제육-풍경', 캔버스에 아크릴, 53×41cm, 2011

## 연두빛 필드 봄을 닮았네

'아련하다', '편안하다', '아늑하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봄빛 '연두'에 대한 얘기다. 봄이 오고 꽃이 피면 녹색은 더욱 깊어져 간다. 추억 속에 남아 있는 봄의 오솔길로, 계곡으로, 꽃밭으로 떠나보자.

#### 4월 건강한 봄 풍경

봄의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싱그러운 바람을 따라 연둣빛 새싹들이 춤을 춘다. 사랑, 사랑 흔들리며 리듬을 탄다.

한파는 길었고, 겨울은 추웠다. 긴 자리를 지키던 겨울이 쉽사리 물러나기 싫었던지 한 파만큼이나 꽃샘추위도 매서웠다. 그 추위를 뚫고 찾아온 봄인데, 누구인들 그 봄이 반갑지 않을 수 있을까. 차가운 겨울 옷깃을 여미던 아가씨의 복장은 가벼워졌고, 추위를 이기고자 재촉하던 걸음은 여유로워졌다.

여기, 또 봄이 온 곳이 있다. 바로 필드 위다. 어쩌면 가장 봄을 기다렸을 골퍼들이 맞이하는 봄. 연둣빛 대지를 밟고, 불어오는 바람을 고스란히 느끼며, 막 피어난 꽃향기에 취해도 좋을 골프장의 봄이 시작됐다.

#### 골프와 예술은 닮아있다

골프와 예술의 만남이 어색하다. 그러나 골프와 예술만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 휴식과 즐거움을 주며, 현대인의 삶과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골프와 예술은 닮아있다.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블랙스톤 리조트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골프 백배 즐기기'展은 골프를 예술 속으로 옮기는데 성공했다.

골프라는 주제가 예술 속으로 들어와 어느 작품으로는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어느 작품에서는 생각이라는 숙제를 준다. 독특한 화풍으로 골프장의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홀의 구멍에서 꽃을 피운다.

골프와 예술이 만나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된다. MEDY<sup>CHECK</sup>



강지만 '스윙연습', 73×56cm, 2010



김덕기 '아름다운 마음-웃음소리', Acrylic on Canvas, 112.1×162.2cm, 2009